

[사회]

학교 안전 대폭 강화

학교장 시설 점검...학생 안전교육 의무화

학교 내 화재나 건물 붕괴 등과 같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일선 학교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을 분기별 또는 수시로 소방시설 및 환기 대피시설, 비상 탈출구, 운동장, 놀이 및 체육시설, 교실·복도·난간·계단 등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청결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건축물, 전기·설비·소방 시설, 놀이 및 체육시설 및 유동물질 등으로 구분해 안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각종 학교시설에 안전표지물을 부착하고 비상시 대피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 학교장 등은 교직원 가운데 시설안전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해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 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교통안전 교육, 암울 노선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횟수나 시간,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르도록 했다.

/연합뉴스

호남고속도 '하이패스' 개통

10월까지 20개 요금소 40개 차로

무정차 통행료 징수시스템 구축

호남고속도로에서도 무정차 통행 요금 수수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가 개통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호남지역본부는 오는 10월까지 호남고속도로 20개 요금소의 40개 차로에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까지 50개 요금소 102차로로 확대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인 OBU(On board unit)를 장착하고 단말기에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해야 한다.

OBU를 발급받으려면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plus.co.kr)에 접속, 회원가입을 한 뒤 단말기 신청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이패스 플러스 카드는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신청서 작성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서 기존 시스템의 시간당 차량 처리속도가 250대에서 720%가 증가한 1천800대로 대폭 향상되고, 차량 지·점제 현상이 해소돼 전국적으로는 향후 10년간 1조원의 사회간접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패스 시스템은 현재 수도권 톨게이트 10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말까지 OBU 설치 차량이 24만대를 돌파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최현기자 cki@kwangju.co.kr

▲하이패스(Hi-pass)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차량이 멈추지 않고 차량 탑재 단말기와 요금소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 간 상호 통신으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방식.



장애인의 날...희망행진 2007

20일 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광주시청 앞 문화광장에서 개최한 '제27회 장애인의 날, 희망행진 2007' 행사에서 시민과 장애인 1천여명이 함께 대형 공을 굴리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금속재 절도 급증한 요즘 고물상 돌아보니

폐지 한수레 값=고기불판 2개값

“훔친듯한 고철 엄청 들어옵니다”

"한 수레에 1천500~2천원 하는 폐지를 줍느니 비슷한 값이 있는 불고기 불판 2~3개를 가져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식성장 지하의 문 닫은 식당에서 불고기 불판 등 시가 200여만원 어치의 스테이너스 식기를 몰래 가져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모(57·동구 금남로 5가)씨가 20일 밝힌 범행동기다.

철·황동 등 원자재 값 급등 주원인

일부 고물상 장물 인출 알고도 매입

이씨는 당초 수레를 끌고 거리를 배회하며 폐지를 주어 팔아 생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거래 중인 고물상에서 '고철 값 시세가 좋다'는 말을 듣고 유혹을 떨치지 못해 범죄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철이나 황동의 국제 원재료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급등하면서 고철 값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20일 현재 광주지역 고물상에서는 고물수집상이 가져온 고철을 1kg당 200~300원, 스테이너스는 2천 500~3천원, 황동은 3천~5천원에 각각 매입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고철은 20~50원, 스테이너스는 1천원, 황동은 500~1천500원이 각각 오른 것이다.

이처럼 고철 값이 크게 오르자 고물수집상들이 폐지

나 빈병을 수집하기 보단 고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폐지는 1kg당 고작 65~90원에 불과해 힘들여 한 수레를 모아야 1천500~2천원 벌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고물수집상은 아예 고철을 훔쳐 팔고 있다.

광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물건을 보면 절도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최근에는 훔친 듯 한 고철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고철 전문 절도범 또한 기습을 부리고 있다. 절도범들은 고철·스테이너스·황동 제품이면 아파트 소화전 관창, 홍수로로 뛰어들고 불고기 불판, 전선에 이르기까지 닦치는 대로 쓱쓸이 해가고 있다.

20일 광주 남부경찰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34·인천시 중구 도원동)씨는 광주·전남 등 전국 126개 아파트를 들여 소화전에 설치된 소방호스 관창 1만753개를 훔쳐 1억4천만원을 쟁쳤다.

상당수 고물상은 고철 값의 중간 마진이 좋은 탓에 훔친 것인지 주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마구 시들이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 고물상은 장물인지 알면서도 매입하며 고철 절도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폐지의 경우 부피가 큰데다가 1kg당 마진이 20~30원에 불과하지만 고철은 80~150원, 스테이너스는 400~600원, 황동은 500~1천500원 등에 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돈이 되면 남의 집 대문까지도 뜯어 가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낡아 보여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장물을 사들이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이씨는 당초 수레를 끌고 거리를 배회하며 폐지를 주어 팔아 생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거래 중인 고물상에서 '고철 값 시세가 좋다'는 말을 듣고 유혹을 떨치지 못해 범죄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철이나 황동의 국제 원재료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급등하면서 고철 값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20일 현재 광주지역 고물상에서는 고물수집상이 가져온 고철을 1kg당 200~300원, 스테이너스는 2천 500~3천원, 황동은 3천~5천원에 각각 매입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고철은 20~50원, 스테이너스는 1천원, 황동은 500~1천500원이 각각 오른 것이다.

이처럼 고철 값이 크게 오르자 고물수집상들이 폐지

나 빈병을 수집하기 보단 고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폐지는 1kg당 고작 65~90원에 불과해 힘들여 한 수레를 모아야 1천500~2천원 벌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고물수집상은 아예 고철을 훔쳐 팔고 있다.

광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물건을 보면 절도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최근에는 훔친 듯 한 고철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고철 전문 절도범 또한 기습을 부리고 있다. 절도범들은 고철·스테이너스·황동 제품이면 아파트 소화전 관창, 홍수로로 뛰어들고 불고기 불판, 전선에 이르기까지 닦치는 대로 쓱쓸이 해가고 있다.

20일 광주 남부경찰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34·인천시 중구 도원동)씨는 광주·전남 등 전국 126개 아파트를 들여 소화전에 설치된 소방호스 관창 1만753개를 훔쳐 1억4천만원을 쟁쳤다.

상당수 고물상은 고철 값의 중간 마진이 좋은 탓에 훔친 것인지 주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마구 시들이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 고물상은 장물인지 알면서도 매입하며 고철 절도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폐지의 경우 부피가 큰데다가 1kg당 마진이 20~30원에 불과하지만 고철은 80~150원, 스테이너스는 400~600원, 황동은 500~1천500원 등에 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돈이 되면 남의 집 대문까지도 뜯어 가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낡아 보여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장물을 사들이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이씨는 당초 수레를 끌고 거리를 배회하며 폐지를 주어 팔아 생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거래 중인 고물상에서 '고철 값 시세가 좋다'는 말을 듣고 유혹을 떨치지 못해 범죄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철이나 황동의 국제 원재료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급등하면서 고철 값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20일 현재 광주지역 고물상에서는 고물수집상이 가져온 고철을 1kg당 200~300원, 스테이너스는 2천 500~3천원, 황동은 3천~5천원에 각각 매입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고철은 20~50원, 스테이너스는 1천원, 황동은 500~1천500원이 각각 오른 것이다.

이처럼 고철 값이 크게 오르자 고물수집상들이 폐지

나 빈병을 수집하기 보단 고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폐지는 1kg당 고작 65~90원에 불과해 힘들여 한 수레를 모아야 1천500~2천원 벌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고물수집상은 아예 고철을 훔쳐 팔고 있다.

광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물건을 보면 절도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최근에는 훔친 듯 한 고철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고철 전문 절도범 또한 기습을 부리고 있다. 절도범들은 고철·스테이너스·황동 제품이면 아파트 소화전 관창, 홍수로로 뛰어들고 불고기 불판, 전선에 이르기까지 닦치는 대로 쓱쓸이 해가고 있다.

20일 광주 남부경찰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34·인천시 중구 도원동)씨는 광주·전남 등 전국 126개 아파트를 들여 소화전에 설치된 소방호스 관창 1만753개를 훔쳐 1억4천만원을 쟁쳤다.

상당수 고물상은 고철 값의 중간 마진이 좋은 탓에 훔친 것인지 주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마구 시들이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 고물상은 장물인지 알면서도 매입하며 고철 절도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폐지의 경우 부피가 큰데다가 1kg당 마진이 20~30원에 불과하지만 고철은 80~150원, 스테이너스는 400~600원, 황동은 500~1천500원 등에 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돈이 되면 남의 집 대문까지도 뜯어 가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낡아 보여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장물을 사들이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ahj@kwangju.co.kr

경찰 금품수수 비리 등
내달 2일까지 집중 감찰

경찰청은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금품수수 등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 본청과 14개 지방경찰청의 모든 감찰요원이 동원되는 이번 감찰에서 경찰은 금품 유착 비리를 집중적으로 대사찰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경찰관이 단속을 맡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유착관계나 금품·향응 수수 사례, 단속 및 사건처리 관련 비리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광주 병역특례지정업체
노동법 위반 354건 적발

광주지역 병역특례지정업체들이 뇌물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노동청(청장 박승태)은 관내 병역특례지정업체 8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말부터 3월까지 실시한 예방점검 결과 3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을 적발해 320건을 시정조치했고, 금품·향응지급 34개 사업장에 대하여 경고조치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화족

▲정영숙씨 장남 정성순군 서한호씨 장녀 미양=21일(토) 오전 11시30분 대전광역시 경복궁 웨딩문화원 3층 동궁홀.

▲임춘옥씨 차남 김윤식(대주건설㈜ 대리)군 김해중씨 장녀 서영양=21일(토) 낮 12시50분 호성웨딩홀 2층 스위트홀.

▲고명석씨 차남 창호군 김윤식(전 해태타이거즈 단장)씨 장녀 정원양=22일(일) 오후 1시 50분 서울밀레니엄 헬튼호텔 1층 오피라특실.

▲조홍석씨 장남 동식군 최윤경(전 해태타이거즈 단장)씨 장녀 정원양=22일(일) 오후 1시 50분 서울밀레니엄 헬튼호텔 1층 오피라특실.

▲양기현(신한회계법인)씨 3남 정훈군 신영진씨 장녀 경희양=21일(토) 오후 1시 40분 광주금호호텔 10층 그랜드빌딩 10층.

▲김윤수(전 신진화국민회의 광주지역 상임공동대표)씨 장남 성범군 임동주씨 장녀 인선양=21일(토) 오후 1시 40분 광주·전북 대구·부산 3층 그랜드홀.